



■ 비상! 2023 제주체육 열전 <14> 농구 제주동중 새내기들

# 펄펄 날던 아이들의 성장기는 계속된다

합덕초 주역들 중학 새 출발  
제주농구 신화 작성 '점프볼'  
"팀 활력 불어넣도록 하겠다"

합덕초는 이제 제주농구의 중심이 됐다. 합덕초는 지난해 참가한 대한민농구협회장배 전국초등학교농구대회와 전국소년체육대회(일도초연합팀), 전국유소년하모니 농구리그 챔피언십까지 모두 3위에 입상했다. 참가하지 않은 전국남녀농구종별선수권대회까지 지난해 4개 대회가 열렸다. 이 중 3개 대회 이상 준결승전에 진출한 팀은 모든 대회에서 우수한 상산초와 함께 합덕초 밖에 없었다.

특히 지난해 5월 29일 경북 김천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충북 중앙초와의 전국소년체육대회 8강전에서 잊지 못할 명승부를 연출했다. 제주선발팀은 전반에만 16-31로 더블스코어 차이로 밀리며 패색이 짙었다. 하지만 후반들어 맹공을 펼친 끝에 56-52로 대역전승을 이끌어냈다. 경기장에 있던 양덕 진영 모두 혀를 내둘렀다.

이렇듯 2022년을 화려하게 장식한 합덕초의 권태훈(가드 165cm), 정승필(포워드 175cm), 정윤서(포인트가드 165cm), 윤대협(가드 170cm), 이민소(센터 180cm), 이준호(가드 164cm)가 2023년 계묘년엔 중학생이 된다. 합덕초 6인방은 제주 유일의 농구부가 있는 제주동중으로 진학한다.



제주시 조천체육관에서 연습하고 있는 제주동중 농구부 새내기들. 정윤서, 윤대협, 이민소, 정승필, 권태훈, 이준호(왼쪽부터). 강희만 기자

이들에게 2022년은 아주 특별한 한 해로 기록되고 있다. '전국대회 3위 3회'라는 외형적인 성적표외에 끈끈한 동료애를 느꼈던 해였다. 하모니리그 지역예선전에서 전주 송천초에 유일한 패배를 당했지만 왕중왕전 8강전에서 실욕하며 4강전에 진출했던때를 기억했다. 또 '첫 대회였던 전국협회장배 4강전에서 상대팀과 접전을 벌이다가 주전센터(이민소)가 부상으로 교체되면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 아쉬웠는데 팀에서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게 됐다'라고 활짝 자란 모습도 보였다. 초등학교에서 최고 선배였지만 올해는 중학교 새내기인 이들의 소

감은 남다르다. "초등학교때보다 더 집중하고, 훈련에 열심히 임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 시합에서도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기술을 코트안에서 보여주며 팀에 필요한 자원이 되고 싶다" 초등학교 당시 팀워크만큼이나 마음가짐도 크게 차이가 없었다. 중학 입학 후 어떤 선수가 되고 싶은가를 물었는데 이 역시 답변은 대동소이했다. 요약하면 "팀에 꼭 필요하고 필요할때마다 그만큼 해 줄 수 있는 선수, 팀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다" 라는 것이다. 이들을 재목으로 성장시킨 합덕

초 이대근 코치는 "기본기가 잘 돼 있고 또한 팀 농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선수들이었다. 환경, 여건, 분위기 등 여러가지로 힘들고 어렵겠지만 성장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유망주라는 수식어 보단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낼 수 있는 선수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새 식구를 맞이한 조형중 제주동중 코치는 "팀 호흡을 많이 기대하고 있고, 올해부터 대회참가를 통해 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고 부상없이 고등학교 진학을 바라보며 팀과 개인의 실력을 끌어 올릴 수 있게 지도하겠다"고 남다른 각오를 피력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 "이곳에서 티박스에 서면 자신감 생겨"

PGA투어 혼다클래식 우승 후보 1순위 임성재

24일(한국시간) 개막하는 미국프로골프(PGA)투어 혼다 클래식에서 전문가들이 꼽는 우승 후보 1순위 임성재(25)가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임성재는 대회 개막을 하루 앞둔 23일 PGA투어와 인터뷰에서 "이곳에서는 티박스에 서면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했다. 임성재는 지난 2020년 우승했고

2021년에는 공동 8위에 오르는 등 혼다 클래식에서 유난히 성적이 좋았다. 임성재는 "처음 우승했던 대회가 혼다 클래식이다. 이 대회에 오면 기분이 좋다. 뭔가 항상 새로운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2020년 대회 때 15번 홀과 17번 홀에서 버디를 했다. 가장 어려운 두 홀에서 모두 버디 해서 우승했

다"는 임성재는 "15번 홀에서 굉장히 떨렸고 압박감이 있었지만 공격적인 샷을 했던 게 우승으로 이어졌다"고 우승 당시를 돌아봤다. 임성재는 또 "이번 시즌에 톱10에 3번 드는 등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다. 항상 침착하게 매 대회 플레이하고 있다. 언젠가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우승 욕심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 제주Utd 올 시즌 성공의 서막 연다

오는 26일 2023 K리그1 수원FC와 홈개막전

제주유나이티드(이하 제주)가 수원FC와의 홈 개막전을 시작으로 2023시즌 성공의 서막을 연다.

제주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제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3시즌 K리그1 홈 개막전에서 수원FC와 격돌한다. 수원FC와의 상대전적은 5승 4무 4패로 제주가 앞서고 있다. 2022시즌 3차례 맞대결에서도 1승 2무로 우위를 점했다.

올 시즌 정상도전과 함께 AFC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위해 제주는 연제운, 김승섭, 유리, 이기혁, 김형근, 헤이스, 임채민, 이주용 등 수준급 선수들을 대거 영입했다. 주장 최영준을 비롯해 구자철, 김동준, 정운, 안현범 등 주축 선수들까지 건재하다.

'헤이마르' 헤이스와 '탱크' 유리가 빠르게 팀에 녹아들며 성공의 예열을 가하고 있다. 지난 2시즌 동안 K리그1과 K리그2 무대에서 인상적인 활약(16골 9도움)을 펼쳤던 헤이스의 여전한 클래스와 유리의 압도적인 마무리 능력이 연습경기에서 강렬한 시너지를 연출했다.

헤이스는 프리시즌 진행된 10차례 연습경기에서 3골 3도움을 기록했다. 적극적인 수비 가담과 동료 위치를 활용한 패스로 경기의 흐름을 순식간에 바꾼다. 유리는 10경기에서 무려 10골을 터트렸다. 압도적인 피지컬로 자신의 별명인 '탱크'처럼 상대 골문을 유린했다.

남기일 감독은 "헤이스와 유리가 팀에 빠르게 적응하며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상윤기자

## SK 스포츠, ESG 챔피언 팀 플레이 선언

축구·농구·남녀 핸드볼 4개 팀 캠페인 원팀 협력



SK그룹이 운영하는 제주유나이티드(축구)와 SK나이스(농구), SK호크스, SK슈가글라이더즈(이상 핸드볼) 구단이 스포츠를 통한 선한 영향력 전파에 힘을 모은다.

SK는 23일 서울 서린빌딩에서 4개 구단 관계자와 대표 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지역 사회 공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담은 '스포츠 ESG' 캠페인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SK 스포츠 구단은 경기에서는 페어 플레이, 밖에서는 다양한 ESG 활동을 전개한다.

환경 측면에서 구단 공통적으로

친환경 유니폼·에너지·굿즈 사용의 확대, 지역사회 환경 정화를 위한 플로깅 행사, 1회용 컵 줄이기 위한 'No Plastic 캠페인'을 시행한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연구 지역 소상공인의 홍보를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기부 및 이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부정 이슈 방지를 위해 선수단 정기 교육 시행, 중대 위반행위 발생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제보 채널 운영 등 윤리적이고 투명한 구단 운영도 병행할 방침이다. 조상윤기자

## 전통의 산호당구재료상사

오랜 세월 제주에서 당구 용품을 공급하며 당구장 업주 여러분과 당구 동호인과 함께해왔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가능한 저렴하고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구장 업소 전품목을 인터넷 가격이하 판매 다양한 개인용품을 구비 전시 판매하며 필요시 배달과 택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 대리점**

허리우드 당구대 · 한밭규 · 빌킹규  
고리나규 · 은성 규 · 코리아규  
기타 제품 및 수입 용품

**시모니스, 고리나, 타키니,  
제니스 등 대대 천 상시 공급**

**큐 수리 공방 운영**

1회성 뜨내기 기사가 아닌 **20년 이상**  
경력의 기사가 상주 하여 당구대 작업을 합니다

상하대 바란스, 선골수리, 팀 부착 및 기타

**개인용품**

개인용 팀(쿠드롱 킹블랙 양크 고리나 산체스 한발 애이볼 아우라 에디맥스 아마도 몰리나리 전뎀 후지 까유이 등)  
개인 초크(고리나 DS 아우라 명품 아라미스 프레데트 블루마운틴 킹다이아몬드 프로페셔널 등)  
장갑(김치 쿠드롱 한발 아우라 고리나 최성원 명품 등)  
기타 그림 출판 초크케이스 등 다양한 개인용품 구비 판매

**한국선물**

각종메 및 트로피  
단체 용품  
행사 용품

**산호당구재료사**

대표 고재철

주소: 제주 제주시 평전1길 30-1  
TEL. (064)757-5710, 5488 H·P. 010-3699-3967

